실속 재테크

금융 통합상품 인기

통장 하나로 은행·증권거래 OK

수수료 절약·업무처리 신속, 고객·영업점 '윈윈'

光銀 그린스타트예금 5개월새 5,300계좌 몰려

은행 예금과 카드, 증권, 보험 등 여러가지 상품을 하나로 묶은 통합 상품이 뜨고 있다. 여러 상품을 한 번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수수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은행의 그린스타트예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출시이후 5천300계좌에 945억원이 몰렸다. 이 상품은 100만원 이상이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자전거 상해보험 무료 가입혜택을 준다. 또 탄소그린카드나 경차를 소유한 고객에겐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국민은행 KB플러스타 통장의 실적은 27일 현재 28만7천계좌에 2천38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의 통장으로 은행 거래와 증권 거래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증권매수 증거금에 대해 증권매수 주문 업무 처리일로부터 매수대금 출금일 전날까지 연 4%대의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연계카드인 세이브카드는 대출금리 연 최고 0.3%포인트 할인과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며 카드 사용실적의 최대 4%, KB플러스타 통장 연계 증권 계좌를 통한 주식 매매 수수료의 5%를 금융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신한은행의 베이지팩 서비스는 출시 4개월 만에 30만계좌를 돌파했다. 베이지팩 서비스는 저축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시 가입시 3개월 동안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업은행이 지난 9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특판에는 4천200억원이 몰렸다.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고객이 정기예금이나 중금채(중소기업금융채권)에 가입하면서 급여를 이체하거나 서민섬김적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중 하나를 추가 가입하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증권사들도 통합상품 출시 대열에 가세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에도 이자가 붙는 '신한 S-More 포인트 통장'을 출시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포인트 통장으로 자동이체돼 최대 연 4%의 수익이 제공된다. 쌓인 포인트는 현금 대신 상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 납부 등에 쓸 수 있다.

대신증권도 최근 펀드·CMA·펀드담보대출을 결합한 맞춤형 결합 금융서비스인 '빌리브(Believe)'를 출시했다. 주식형 펀드에 2천만원 이상 가입하면 금액에 따라 국공채 CMA 이자를 연 5~9%까지 받을 수 있고, 연 1~5%의 금리로 펀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통합상품은 고객에겐 수수료 절약과 서류 간편화 혜택을 주고 은행도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져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 은행 및 증권 통합상품

상품명	혜택
광주은행 그린스타트 예금	-탄소그린카드 가입 및 이용고객, 경차 및 친환경 차 보유고객에 0.1% 우대이율 -자전거 상해보험 무료가입
국민은행 KB플러스타 통장	-하나의 통장으로 은행과 증권거래 가능 -증권매수 증거금에 연 4%대의 우대이율
신한은행 베이지팩 서비스	-저축예금통장 개설시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동시 가입 및 3개월간 이체수수료 면제
하나은행 빅팟 통장	-통장 가입시 CMA 자동 연결로 여유자금 증권 거래
대신증권 '빌리브' 금융서비스	-주식형펀드 2,000만원 이상 가입시 국공채 CMA 이자 5~9% 적용 혜택
신한금융투자 에스-모어 포인트통장	-신용카드 포인트에 최대 연 4% 수익

올 겨울 모피 패션 27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트리니티&블랑쉐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올 겨울 유행할 다양한 소재의 모피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조업체 비중 사상 첫 한자릿수 추락

통계청 조사… 광주는 늘고 전남은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비중이 경제 위기의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한자릿수 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사업체 수가 증가했으나, 전남은 다소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26만8천개, 종사자 수는 1천626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2%와 2.0% 증가했다. 즉 인구 3명 중 1명이 사업체에 일한 셈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14.3%(1만1천788개)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각각 4.1%(1만3천749개), 0.9%(8천188개) 감소했다.

특히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2007년 10.3%에서 지난해 9.8%로 0.5% 포인트 줄었다.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 10.4%, 2001년 10.9%, 2002년 10.7%, 2003년 10.3%, 2004년 10.3%, 2005년 10.9%, 2006년 10.7%를 기록했다.

김경태 통계청 산업통계과장은 "1993년에 제조업 사업체 수의 비중이 12.2%였으며 이후 10% 이상을 유지해왔다"면서 "그런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9.8%를 기록하며 10% 미만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9만7천637개, 46만1천281명으로 각각 전년 보다 0.5%(526개), 1.0%(4천706명)늘었다.

반면 전남은 사업체가 12만4천355개로, 전년보다 -0.3%(381개) 감소했다. 종사자수는 53만4천795명으로 3.0%(1만5천788명) 증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기아차 노조 집행부 선거

내달 3일 결선투표

기아차 노조 지부장 및 광주지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내달 3일 2차 결선투표를 갖게 됐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27일 치러진 지회장 선거 1차 투표 개표결과, 김성철 후보가 1천922표(31%)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남철원 후보(1천859표·30%), 이병지 후보(1천456표·23%), 송희흥 후보(911표·15%)순이었다.

기아차 지부장 선거는 김성락 후보가 8천85표(27.9%)로 1위를 차지했고 박홍귀 후보가 6천644표(22.9%)로 뒤를 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프라이드 디젤 '연비왕'

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 1.5 디젤(수동)과 현대자동차의 베르나 1.5 디젤(수동)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에 연비가 등록된 차량 중 가장 연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프라이드 1.5 디젤과 베르나 1.5 디젤의 수동변속기 모델은 연비가 나란히 22.0㎞/ℓ로, 9월까지 연비가 등록된 차량 가운데 연비 1위를 기록했다.

GM대우의 마티즈 1.0(수동)이나 기아차의 모닝 1.0(수동)은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모델 가운데는 연비가 가장 좋았지만 경차임에도 연비가 각각 21.0㎞/ℓ, 20.0㎞/ℓ 씩으로, 배기량과 차체가 더 큰 프라이드 및 베르나 디젤(수동) 모델보다 연비가 낮았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무단변속기)와 기아차의 포르테 LPG 하이브리드도 나란히 17.8㎞/ℓ의 연비로, 경차보다 연비가 높은 수준이었다 /연합뉴스